



기술표준뉴스

제34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기술표준원은 '08.11.20(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오디토리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임재민 지식경제부제1차관,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기업인, 근로자 및 수상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국가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최우수 품질 근로자와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STX엔진(주)가 '품질경영상'을 (주)세한산업이 '가치혁신상'을 (주)진로가 '소비자만족상'을 수상하는 등 총 12개 기업이 '국가품질상'을 수상하고 (주)하이닉스반도체 이천사업장의 '2G' 분임조 등 243개 분임조가

'우수분임조상'을 금호타이어(주)곡성공장의 장윤호 주임 등 32명의 품질혁신 우수 근로자가 '품질명장(名匠)'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주)엠에스오토텍의 이양섭 회장, 아주산업(주)의 문규영 회장, (주)현대아이파크몰의 최동주 사장이 뛰어난 품질혁신경영의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금호산업(주)의 윤생진 진부,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구자겸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총 55명의 유공자가 훈·포장, 표창 등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품질혁신과 공정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치하하며, 21세기 품질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적인 품질경영 활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기 지속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소비자를 감동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IEC 정책위(CB, SMB) 재진출 쾌거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제72차 IEC총회(11.17~21)에서 우리나라는 올해말로 3년 임기 만료되는 IEC 정책위원회(CB 및 SMB) 재진출에 성공함으로 지난 ISO/TMB 당선(10.27)에 이은 쾌거로 국제표준화활동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양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및 IEC 정책위원회에 모두 진출함으로써 국제표준화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금번 선거는 향후 유망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저탄소성장권 관련하여 각국의 전기기술 산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IEC의 정책입부를 총괄하는 CB선거에 있어서는 5개 자리를 두고 8개국이 경합을 벌였으며, 기술관련업무를 총괄하는 SMB선거에 있어서도 3개 자리를 두고 6개국이 치열한 선거활동을 벌여 재진출에 성공함으로써 현재 CAB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수현위원과 함께 IEC 주요 정책위원회에 모두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총회기간동안 기술표준위 허경 국장 등 대표단은 51개 전체 정회원국중 취약지역인 중동 및 동구권을 집중적으로 개별접촉 하여 전략적 목표활성을 펼쳤으며, IEC에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주요 5개 국가의 표준화기관과도 양자회의를 통해 지지확보 활동을 병행 전개하였다.

금번 연임에 성공한 CB 이사는 주덕영 한양대

석좌교수가, SMB 이사는 신명재 한국개발측정협회 부회장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62개국 1,000여명이 참가한 금번 IEC총회에서는 중장기 IEC표준화전략 및 이행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IEC표준의 기여"라는 주제로 오픈세션이 개최되어 향후 IEC표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고, 특히, 네덜란드의 Mr. Frans Vreeswijk가 발표한 "Value of Standardization for Industry"가 각광을 받았다.

우수시험·검사기관 및 평가사 포상식

기술표준원은 KOLAS 공인기관, 수출기업, 시험평가 국제전문가 등 250여명을 초청한 "우수 시험·검사기관과 평가사 포상식"을 11월27일(목) 동 중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올해로 9회째로 맞는 본 행사는 KOLAS 인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3개 기관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함영삼" 등 12명에게 정부 포상을 각각 수여하였다.

금번에 수상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일모직(주) 등은 KOLAS의 상호인정협정(ILAC-MRA)에 의한 세계 47개국에 통용되는 국제 공인시험성적서를 통해 수출에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 포스코 포항제철소 : '07년에 KOLAS성적서 100만건(시험분야의 철강)을 발행하여 수출실적 8조9천억원 달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아울러, 이날 기념 워크샵에서는 RoHS규제와 관련된 6대 유해물질 분석방법이 국제표준(IEC 62321)으로 제정됨에 따라, 국내 관련기업이

KOLAS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해외시장진출이 용이토록 'RoHS분야 국제상호인정제도'를 마련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앞서 미국 소비제품안전위원회(CPSC)가 11월 12일에 시행한 어린이용 제품에 대하여 사전 인증을 의무화함에 따라 KOLAS에서는 '미국 CPSC인정기준'을 마련 후 6개 KOLAS 시험기관을 인정하여 KOLAS 인증서로 미국 수출이 가능토록 하였다.

앞으로도 기술표준원은 신수요 분야의 무역 촉진을 위해 "의료서비스 및 SW분야"와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된 "환경,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에서 인정제도 확대를 통하여 수출견인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제5차 한중적합성 소위원회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8일 중국 서안에서 중국의 CCC마크 등 강제인증제도의 주관부서인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의 제5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회를 개최하였다.

- CNCA :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허경 기술표준정책국장과 류 웨이준 최고기술감독국장을 단장으로 한·중 양국간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산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성(시험·인증·인정) 분야에서 정보교류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실시에 대하여 기업의 기술정보 유출과 인증획득에 따른 시간과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심각히 우려를 전달한 바 중국측은 13개 정보보안 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시행을 전면 보류하고 각국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실시에 대하여 국내 업계는 현재까지 어떤 나라도 상용제품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의 기술정보 유출과 인증획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증가 등을 이유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왔다.

당초 중국은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겠다고 '07년 8월 WTO에 통보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 안전에 필요한 부분에만 시행할 것 등을 지적받아 왔다.

한편 본 건과 관련하여 한중 양국은 정보보안제품 인증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국내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밖에도 한중간의 무역확대를 위하여 적합성평가분야의 양국간 숙련도 시험의 참여확대 및 에너지 절약 제품인증관련 정보교환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또한, 사우디,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규 강제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양국간 정보

교류 및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2008 신기술실용화 및 인증제품구매 촉진대회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2008 신기술실용화 및 인증제품 구매 촉진대회」가 11월 10일(월) 오후 2시 정상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과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등 신기술개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구매 책임자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상생협력,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증제품의 실용화와 구매 촉진에 기여한 32개 기업에 대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단체 표창과 33명의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등 정부 포상도 있었는데, 수상자 대부분이(63개기업)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차용 자동제어형 에어헤파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용화에 헌신해온 (주)오택의 강성희 대표이사가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을 「재활용폐식

용유(대두유)지방산」을 개발한 (주)지앤오 코퍼레이션의 김형봉 연구소장이 산업포장을받는등 신기술실용화와 인증제품 원로지원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이 20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이 45개 등 모두 65개의 훈장, 포장 및 표창이 유공자와 유공기업에게 수여됐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이날 선포식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의 주력산업은 모두 이미 세계 5위 이내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세계가 놀랄만한 이러한 성과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끊임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인증제품을 통해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시키고 실용화에 성공한 신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다각적인 관로를 지원”하는 등 오늘의 선포식을 통해 동반성장 상생협력에 의한 인증제품의 구매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산업 등 첨단제품 생산의 출발점이며, 국가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이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오늘 열리는 「신기술실용화 및 인증제품 구매촉진대회」는 기술 개발의 실용화를 통한 수입대체와 수출 증대는 물론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기술·친환경인증제품의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능동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신기술 및 신기술·친환경제품을 적극 발굴·지원될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제품에만 인센션을 준

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한편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인증제품 구매 확산과 해외 원로지원” 등의 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어린이용 제품 안전성 대폭 강화

바비인형으로 잘 알려진 미국 마텔사에서 107년 납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완구 150만개를 리콜하는 등 중국산 완구에 대한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미국은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규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미국 소비제품 안전위원회(CPSC)가 올해 8월14일 통과된 "2008 소비제품 안전개선법"에 근거해 '08년 11월 12일부터 제조되는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사전 인증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사우디 아라비아도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인증서(CoC)를 첨부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사우디 표준청과 상호인정협력을 체결하고 기술표준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을 통하여 각 수출기업이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대응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미국 및 사우디 등 수출기업업 대상으로 11월 11일(화) 등 중강당에서 신설 TBT(강제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 ※ 대미 어린이용 제품의 수출을 위한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 :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섬유기술연구소, 한국

화학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SGS Testing Korea, FITI 시험연구원 등 6개 시험기관

- 어린이용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일정을 고려하여 상기 KOLAS시험기관에 시험 분석을 의뢰하고, 선저전에 적합성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어린이용 제품 중 납 함유 페인트가 포함된 제품은 11월12일부터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유아용 침대 및 노리개 깃털지는 내년 1월, 어린이용 금속 장신구, 흔들이, 보행기 및 점퍼 등은 내년 중에 순차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다.

※ 대사우디 수출시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 :

- 한국선자파연구원, 한국기유화학시험연구원, KTL,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선기선자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TUB SUD, Intertek, Nemko, VDE, TUB Rheinland, SGS, HSB-RS 등 16개 기관

승강기 형상, 재료 등 규제 대폭 완화

기술표준원은 업체의 신기술 승강기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승강기 형상, 재료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 오는 11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승강로의 형상, 치수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애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토록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신기술 재료 및 방식 등을 허용하며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별도의 위험성 분석 방법 등의 규제기준을 도입하여 안전을 확보토록 하였다.

또한, 승강로 형상 및 치수 제한을 폐지하여 건물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독창적인 디자인 구현과 다양한 형상의 승강기 설계가 가능토록 한다.



승강기 추락방지 보호판 등의 경우 그간 금속재판 등을 사용토록 규정하여 왔으나 강도 및 내화성능 등을 만족할 경우 유리 등 다양한 재료의 사용을 허용하였다.

옥내 전망용 승강기의 경우 승강로에의 접근 방지 보호벽의 설치뿐 아니라 화단이나 연못, 난간 등의 추가적인 시설물의 설치를 규정하여 왔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은 화단, 난간 등의 설치규정은 삭제하였다.

승강기 로프를 고정하는 방식의 경우 그간 특정 방식만을 허용하였으나 안전성이 확인된 다양한 고정방식을 허용하여 신기술 방식 적용을 가능토록 한다.

기술표준원은 급변 규제합리화를 통하여 업체의 신기술 승강기 개발촉진을 통한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상의 승강기 설치가 가능해져 아름다운 도시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업계에서는 신기술 적용 승강기의 수요가 5년 후에는 연간 약 2,000억 이상 규모의 내수(수입대체 포함) 및 수출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8회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

기술표준원은 '08.11.12(수) 오전 11시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정밀산업기술 관련기업과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38회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70년 개최된 이래 올해로 서른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근간인 정밀산업기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것은 물론, 정밀산업기술과 측정기



술의 진흥에 공이 큰 유공자 및 기업에 대한 정부포상으로 기술인 및 기업의 사기를 앙양하고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남인석 기술표준원장은 지사를 통하여 미래 국기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초정밀 측정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을 중점 지원하여 이 대회를 미래 신성장산업의 교두보 역할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초정밀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로 고품질의 D-RAM 양산체제 정착에 기여한 공이 큰 임광빈 프롬써어티(주) 대표이사가 농탑산업훈장을, 산업체의 교정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밀·정확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이동진(주)한국인측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받는 등 52명의 유공자가 수상하였다.

기업에게 수여되는 표창에는 정밀측정기술 분야에 공이 큰 이윤우 삼성전자(주) LCD 총괄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56개 기업이 수상하였다.

| 기술표준 2008.12

